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복음기도신문

Gospel Prayer Newspaper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어판 www.gnpnews.net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십자가 사랑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성도를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동성애·동성혼 개헌안, 전국민 반대 여론 무성

개헌특위, ‘양성 평등’을 ‘성 평등’으로 바꾸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가 헌법 개정안에 동성결혼과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에 대한 전국민의 반대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전국 223개 대학 2190명의 교수들은 개헌특위 제1소위원회가 여성권의 보호를 내세워 양성 평등을 폐지하고 헌법 개정안에 성 평등 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앞서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국민연합(운영위원장 김원평)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개헌 특위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유튜브 영상을 제작, 배포하는데 이어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행 헌법 제36조 1항에는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개헌특위는 ‘양성 평등’이란 용어를 ‘성 평등’이란 용어로 바꾸려 하고 있다.

문제는 ‘양성 평등’과 ‘성 평등’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생물학적

인 성은 남성과 여성을 전제로 하는 ‘양성 평등’이며 ‘성 평등’은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50여 가지나 되는 사회적 성을 말한다.

만약 개헌을 통해 현행 헌법에 ‘양성 평등’이라는 용어가 사회적 성을 인정하는 ‘성 평등’으로 바뀌게 되면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는 근거, 동성 결혼 합법화를 위한 근거가 된다. 더 나아가서 결혼과 가족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GNPNEWS]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이사야 56:1)

기도 |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발버둥 치는 죄인 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소서.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사 하나님께만 구원과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공의는 마침내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합니다.

복음기도 포토에세이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 파키스탄의 한 아이

아이 의 손에 들린 칠판, 작은 손으로 쥘 분필. 알파벳 글씨를 배우는 모양이다. 아이의 표정은 마치 ‘내가 얼마나 잘 쓰는지 한번 보세요.’라고 하는 듯하다. 정말 잘 쓸 수 있을까? 처음 따라 쓰는 알파벳이라면 당연히 뻘뻘뻘 쓰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아이는 의기소침해 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이 쓴 글씨를 자랑스럽게 내밀 것이다.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보겠노라’고 시작한 우리의 믿음의 삶도 처음엔 의기양양,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대단한 믿음의 승리만큼 넘어지고 넘어지는 시간도 많다. 그 모습에 스스로 의기소침해 절망할 때도 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넘어져 있는 우리의 무릎을 다시 일으키신다.

처음 글을 배울 땐, 틀리는 것이 어찌면 당연한 일이다. 처음 걷는 믿음의 길에서도 어찌면 넘어짐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의기소침해 할 것 없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이사야 48:17) [GNPNEWS]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41)

식구들의 반대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요?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겨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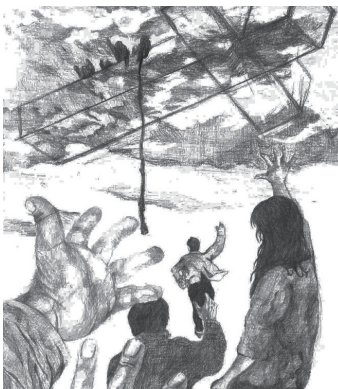
식구들 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군요.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정말 가족 관계가 나빠질까요? 처음엔 식구들이 반대하니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초기에 예상되는 이런 마찰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얼마든지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당신이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예수 안에 진

리가 있다고 믿지 못하는 것이지, 식구들의 반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당신은 식구들과 의견이 다른 무수히 많은 것들을 당신 뜻대로 해왔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말을 뒷전으로 하고 당신이 가치를 둔 것들을 추구해왔고, 심지어 몰래 했던 것들도 있지 않은가요? 이렇게 당신이 얼마나 당신 생각대로 살아왔는지 굳이 짚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분명 운명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심판받습니다. 그때 “믿고 싶었지

만 식구들이 싫어해서, 못 가게 해서...”라는 변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당당히 통과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은 당신 안에 예수의 생명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당신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으로 모셔 당신도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가족 걱정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받게 되는 복을 당신을 통해



일러스트= 김경선

서 하나님이 주시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면 당신이야말로 가족에게 구원의 생명줄을 던지는 또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GNP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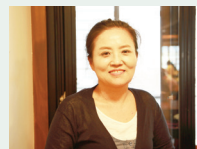
* 신앙상담 316전화
이 글을 읽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하세요. 복음의 소리 '316전화' ☎ 1670-3160

INSIDE

02 뉴스 | 한국
2017 다시복음앞에 '오직 믿음' 온라인 접수

03 기획 | 현장 리포트
역사의 현장에서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을 듣다

05 인터뷰 | 이리나 집사
“세계 중요한 건 오직 예수님 한 분 밖에 없어요”



06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김용의 진리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08 뷰즈 인 아트 | 밀레의 <수확자들의 휴식-롯과 보아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한국

“2017 다시복음앞에 ‘오직 믿음’ 온라인 접수”

8월 15일부터 선착순 마감



▶ 선한목자교회에서 열린 2015 다시복음앞에

2017 다시복음앞에(Return to the Gospel) 집회가 10월 31일(화) 종교개혁기념일부터 11월 3일까지 3박 4일간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담임: 유기성 목사)에서 열린다.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는 2011년 오직 복음으로, 2013년 오직 성경으로, 2015년 오직 예수 그리스

도, 2016년 금식기도성회에 이어 5번째 열리며, 이번 대회 주제는 ‘오직 믿음’(롬 1:17)이다.

특히 이번 집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종교개혁 5대 강령 중 ‘오직 믿음’을 주제로 채택해 절대가치를 부정하는 이 세대 한복판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

한 진리가 선포될 예정이다.

이번 집회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방식인 헌금제로 운영되며, 또 자원하는 섬김이들의 자발적인 섬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집회 참가자는 복음기도동맹 사무국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www.gpally.org)에서 선착순으로 8월 15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그동안 다시복음앞에 집회는 동일한 장소인 선한목자교회에서 열렸으며, 집회기간에 총 3~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복음기도동맹은 ‘예수생명’으로 고백하며 복음과 기도를 신앙의 핵심가치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해 연합하기로 결단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다.

또 이같은 신앙고백을 담은 복음기도동맹 선언문과 예배, 복음, 기도, 연합, 권위, 소유, 선교 등 7가지 영역에 대한 행동강령이 있다. 접수 및 문의: 복음기도동맹 사무국(www.gpally.org) ☎ 010-5938-4641 [GNPNEWS]

북한

임현수 목사 석방... 남은 北 억류자 10여 명 석방 요구



▶ 북한억류 당시 인터뷰 모습(출처: CNN 캡처)

선민네트워크 등 25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북한 억류자 석방추구

시민단체협의회는 31개월간 북한 강제수용소에 억류돼 있던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62. 사진) 석방을 환영하면서 남은 억류자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이 협의회는 “북한에 미 국적자인 김동철 목사, 평양과학기술대 김상덕 목사, 직원 김학송씨, 중국인 조선족 장만석 집사 등 4명과 대한민국 국적의 김정욱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춘길 씨, 고현철 씨 외 탈북민 등 10여 명이 강제 억류돼 있다.”며 “이들은 북한동포

를 돕던 성직자와 선량한 사람들로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국민 석방을 위해 더 적극 노력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임 목사 가족은 “석방 소식에 매우 기뻐하고 있으며 하루 빨리 그를 보고 싶다.”고 국제뉴스통신은 전했다.

또한 가족들은 임 목사가 송환되도록 북한 당국과 협력한 캐나다 정부와 도움을 준 스웨덴 외교부 측에도 감사를 표했다. [GNPNEWS]

아시아

한국 기독교인들, 스리랑카 종교 자유 탄원서 제출

스리랑카 기독교인들에 대한 불교계의 공격과 관련, 스리랑카 정부가 폭력 가해자를 기소하고 기독교인의 종교 자유를 인정하도록 촉구하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탄원서가 제출됐다.

한국순교자의 소리는 한국 기독교인 1천 명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서울 중구 동호로에 위치한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에 8월 17일 제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탄원서는 기독교인과 무슬

림을 향한 최근 공격을 강하게 규탄하며, 이들의 예배 장소 보호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스리랑카 정부가 인권 기준에 따라 가해자들을 기소하고 종교 및 신앙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스리랑카기독교복음주의연맹에 따르면, 지난 몇 달간 소수종교를 향한 불교계의 공격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기독교 예배 처소를 공격하고 예배를 방해한 사

건은 40여 건 이상에 달했으며, 이 곳의 소수종교인 무슬림을 향한 공격 역시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15년 현 정부 출범 이후 교회, 사제 및 기독교인들을 향한 종교 탄압은 190여 건 이상 발생했다. 지난 5월 18일 마타라 주 데비누와 라 지역에 있는 기독교 예배처소에서는 30여 명의 불교 승려와 2천여 명의 시위대가 이 나라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며 큰 시위를 벌였다.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7.31~8.13)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궐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전세계 배치된 핵탄두 1만 개...“한 발로 760만 명 즉사할 수도”

현재 지구촌 핵보유국들이 가진 핵탄두 수는 약 1만5천 개로, 이 중 1만 개는 실전 배치돼 있다고 무기통제협회(ACA)의 말을 인용,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30일 보도했다. 이중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핵무기 수는 전체의 88%이다.

하나님, 자신의 힘을 키우고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압박하는 무기를 개발하고, 불안정한 터전 위에서 안식을 누리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인간의 참된 안식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베트남 북부 산사태...최소 26명 사망·15명 실종

베트남 북부 지역에 홍수와 산사태로 최소 26명이 숨지고 15명이 실종됐으며 27명이 부상했다고 베트남 재난관리본부의 말을 인용해 7일 AFP통신이 보도했다. 당국은 북서부 전역에서 650채 이상의 가옥이 파손됐으며, 많은 농경지가 훼손됐다고 전했다.

궁홀이 풍성한 하나님. 베트남이 수해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죄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을 안전하게 변화시킬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회복이 있게 하소서.

폴란드, 제노포비아 범죄 2010년 이후 6배 증가

폴란드에서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증)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에 30~100건의 외국인에 대한 공격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으며 범죄 건수는 지난 2010년 이후 6배 증가했다고 도이체벨레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여, 인간에게는 결코 이타적인 사랑이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랑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폴란드에 부어지게 하소서. 이민자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기적이 주의 몸 된 교회들을 통해 먼저 시행되길 기도합니다.

마약성 진통제 남용에 매일 142명 사망... 미국, 국가비상사태 촉구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남용 문제 해결을 위해 꾸려진 백악관 위원회는 “매일 미국인 142명이 오피오이드 중독으로 숨지며 3주마다 9·11 테러와 같은 수준의 사망자 수를 견디고 있다.”라며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촉구했다고 3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고통을 덜어주는 약이 더 큰 중독의 문제로 번지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보며 눈물과 고통이 영원히 없는 분향을 사모하게 됩니다. 영원한 만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7년 8월 21일 ~ 9월 2일

8월 21일~26일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 (강**)010-7364-9982

8.21~25(07시~23시)

▶강원 강릉 / 은강교회 (박**)010-7439-7020

8.21~25(14시~19시)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인아)031-432-1590

8.21~25(19~24시)

▶광주 서구 / 십자가복음교회 (김**)010-9883-2347

8.24~25(06~18시)

▶전북 전주 / 사론교회 (진**)010-2638-1440

8.25(08~20시)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

8.25(22시)~26(22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010-7766-3100

8.21~22,24~25(10~12시)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

8월 28일~9월 2일

▶경기 성남 / 선한목자교회 (최**)010-4202-0079

8.28(00~24)

▶태국 팜파공 / 레인보우센터 (유옥임)

8.28~29,31~9.1(10~12시)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

8.28~9.1(14시~19시)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인아)031-432-1590

9.1(08시~20시)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

9.1(22시)~2(22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010-7766-3100

9.2(06시~18시)

▶서울 관악 / 신림감리교회 (강**)010-5408-6348

*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현장 리포트 | 종교개혁 현장을 가다

역사의 현장에서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을 듣다



▶ 이탈리아 바티칸 시국 남동쪽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 외부 풍경



▶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카타콤 외부 (위)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존 칼빈의 무덤. 묘비명에는 J.C 라는 칼빈의 이니셜밖에 없다.

2017년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매우 뜻깊은 해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 조 반박문을 내걸며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그 현장으로부터 정확히 500년이 지난 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의미 있는 해에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개혁의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다. 총 12일간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프랑스 4개의 국가를 방문하며 종교개혁가들의 흔적이 서린 곳곳을 다니게 되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깊이 느끼게 하신 것은 바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이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증명된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쉽게 선택하고 따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종교가 로마 가톨릭이다. 이탈리아 도시들을 방문했을 때 가장 중심부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당이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로마 가톨릭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바티칸에서는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의 웅장함으로 사람들의 종교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바울과 베드로를 성인으로 추대해 성물과 성화를 통해 그것들을 숭배하고 있었다. 잘 만들어진 성물, 성화, 이야기들로 눈에 보기에 좋은 종교를 만들어 놓고 있었다.

하지만 초대교회 신앙을 굳게 지킨 사람들의 흔적은 매우 초라했다. 그들이 로마 황제의 박해를 피해 신앙을 지키고자 숨어들어 갔던 지하 무덤 카타콤은 어둡고 좁았다. 실제로 들어가 보니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체들을 안치해 둔 곳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정신을 교육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신과 동일한 고난의 삶을 물려주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족 공동무덤에서 성찬을 나누며 신앙을 교육했다. 이들이 진정으로 추구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었다.

잘 만들어진 종교에서 벗어나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를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의 흔적도 그와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온전히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만으로 충분한 사람들이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은 칼빈의 무덤이었다.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의 체계를 세워줬던 칼빈의 무덤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다른 화려한 무덤들 속에서 칼빈의 무덤은 찾기 어려울 만큼 작고 초라했다. 손바닥만한 비석에 존 칼빈의 줄임말인 J.C 라고 적혀 있는 것이 전부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라

루터와 칼빈이 사역했던 교회도 마찬가지로였다. 그들은 종교개혁 이후 새로운 건물을 지어 예배당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가톨릭 건물을 개조해서 사용하였다. 그 안에 있던 모든 장식들은 떼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단만 눈에 띄도록 만들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로 장식된 종교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했던 그 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를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을 역사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종교개혁의 현장을 방문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유럽은 분명 문화적으로 발전되어 있는 선진국이지만 그 안에서 꽃피었던 종교개혁의 정신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닌 보이지 않는 믿음을 추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종교개혁 500주년의 뜻깊은 해를 맞아,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믿음을 추구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결단한다. [GNPNEWS]

황아름 전도사(엘벨렐교회)



▶ 독일 비텐부르크 성당 내부. 마틴 루터가 설교했던 설교단

美 플로리다주, 학교에서 종교 표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공립학교 종교표현법 7월부터 시행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그동안 학생이나 부모, 교직원들은 학교에서 종교적 견해 또는 표현을 자유롭게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7월 1일부터 '공립학교 종교표현법'이 발효돼 이같은 종교적 차별이 사라졌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인 월드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하원 의원은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처벌의 두려움 없이 교내 생활에서 자유롭게 종교에 대해 말할 수

있고, 방해 없이 기도할 수 있으며, 종교적인 상징을 나타내는 옷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게 됐다. 주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스포츠 행사나 집회와 같은 학교가 승인한 행사에서 학생들이 주도하여 기도하는 것을 학교가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3년 전 브로워드(Broward)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자유롭게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책을 읽고 있는 학생에게 책을 집어넣으라고 강요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지게 됐다. 이 법안을 공동 후원한 패트리샤 윌리엄스 주 하원 의원은 "이 일은 제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 뒤를 이어 오는 다음세대 학생들이 자유롭게 종교적인 표현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혔다. 플로리다에서 종교자유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매트 스테이버는 "이 새로운 법안으로 플로리다 학생들이 종교적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GNPNEWS]



▶ 선레이크와 헤르난도 고등학교 미식 축구 선수들이 경기 시작 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출처: Tampa Bay Times 캡처)

기획 | 조선선교열전 (6) - 전라북도 편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근대 교육이 시작되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올해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132주년을 맞고 있다. 구한말부터 본격화된 개신교 선교 역사는 문화, 교육, 의료 분야에서 우리나라 역사와 맥을 같이 하며 한반도의 근대화와 함께 진행됐다. 우리나라 곳곳의 선교역사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본다. <편집자>

성경학교의 시작

전주의 첫 세례자들이 나오자 1896년 9월 두 번째 세례식에서는 30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았다. 본격적인 선교활동이 이어지자 선교사들은 지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킬 필요성을 느껴 성경학교를 열었다. 1899년 14명의 남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 성경학교는 수 주일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전킨과 레이놀즈 부부가 교사가 되었다. 이들은 성경공부뿐 아니라 성서 신학, 예수의 일생과 성지, 지리 등을 공부했고, 주일 오후에는 노상전도를 나가 말씀을 전했다.

성경학교를 열었던 이듬해 1900년 9월 9일에 서문밖 완산 북림 기슭에 있는 레이놀즈 목사의 사랑에서 당시 16세의 소년 김창국 한 사람으로 근대식 교육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전주에서 시작된 최초의 근대교육인 신흥학교의 출발이었다.

김창국은 전주 최초의 세례 교인 5명 중 한 명이었다. 그의 조모



▶ 신흥학교 초기의 기와집(희현당)(왼쪽)과 초기의 기전여학교 풍경(출처: 전주신흥학교역사다큐멘터리, 한국기독교회사)



와 모친 역시 전주 최초의 신자들이었다. 테이트 목사의 사동(使童)이었던 그는 해리슨 부인의 주선으로 평양에 있는 숭실중학교를 거쳐, 평양 신학교에 진학하여 호남 지방 최초의 신학교 졸업생이 되었으며, 그해 목사가 되었다. 제주도과 전북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설립했고, '가을의 기도'로 유명한 시인 김현승이 그의 차남이다.

전주 최초의 근대교육 신흥학교

그 후 1901년 7월 1일 의료선교사였던 해리슨 목사와 그의 여학생에 의해 8명의 남학생을 대상으로 작은 주간학교가 시작되었다. 시작할 때부터 선교부는 기독교 학교의 목적을 두고 어린이들을 교육하고자 했다. 교육비는 자립적으로 학부모들이 나누어 부담하기로

했다. 해리슨 목사는 1901년 7월 9일자 보고에 다음과 같이 썼다.

“기독교 가정에서 온 소년들을 위해 학교가 문을 열었다. 학교를 여는 문제에 대해 부모들에게 의견을 물었고, 부모들은 학교가 시작하기 전부터 8명이나 되는 소년들을 보내 주었다. 그들 가운데는 커다란 희망을 품고 있는 몇몇 어린애들도 있었다. 우리들은 건물과 책, 그리고 유능한 교사 등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이 부족하다.”

처음 몇 년은 사택 사랑채로 모여드는 어린아이들을 비공식적으로 가르쳤다. 1904년 가을, 화산리로 이전했을 당시 학생은 10명이었고, 선생은 해리슨의 부인 등 5명이었다. 1906년 봄에 희현당 옛터에 기와집 한 채를 지어 이전할 무렵의 학생수는 55명으로 늘어났

다. 그 후 학교 책임자로 니스벳 부부가 도착하면서 본격적인 교육이 지원되고, 1908년 그동안 '예수교 학교'라고 불리던 이름을 '신흥(新興, 새 여명)'이라고 했다. 1909년 보통과 제1회 졸업생 5명을 배출했고, 그해 한국 선교의 후원자 그라함(C.E. Graham)씨가 현금한 1만 달러로 벽돌 양옥 2층 학교 건물이 세워졌다. 당시 학생 수는 보통과를 합하여 150명이나 되었다.

사랑방에서 시작된 기전여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작은 주간학교가 시작되자, 1902년부터 매티 테이트는 12명의 소녀들을 모아 자기 집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교회 교육과 일반 과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1904년 전킨 선교사의 전주 부임 이후 그의 부인 메리 레이번

이 교육을 담당하였고, 다시 1907년 2월에는 교육 전문가인 랭킨(Rankin) 여선교사가 파송되어 와서 본격적으로 학교를 운영했다. 처음 전주여학교라고 불렸던 이 학교는 이 지역의 개척선교사였던 전킨 사후에 '전킨을 기념한다(紀全)'는 뜻으로 '기전여학교'로 불리게 되었다. 이 땅의 근대교육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선교사들의 죽음은 안타까움을 주기도 했다. 전킨 선교사와 아내 메리 레이번은 어린 세 아들을 연달아 이 땅에서 잃었고, 전킨마저 타국에서의 많은 고비와 그로 인해 얻은 지병으로 1908년 43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랭킨 역시 기전여학교를 맡은 지 4년 만에 총수염 수술 후 1911년 이 고장에서 별세했다.

신사참배 강요로 자진폐교

전북지방의 청소년들이 신교육을 받기 위해서 모여 들었던 기전여학교와 신흥학교는 1919년 3.1 운동에 앞장섰던 학교로 유명하다. 학생들은 구국기도회를 만들고 일분어 시간에 침묵으로 저항하기도 했다. 후에 두 학교 모두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자진폐교하였다가 해방 후 다시 복교한 후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계속> [GNPNEWS]

참고문헌: <전북선교 120주년과 예수병원 설립 115주년 기념 포럼>(2013) <한국선교이야기, 조지 톰슨 브라운 지음, 도서출판 동연>(2010)



선교 통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선교지에서 지낸 지 십 년이 넘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감사하는 좋은 습관이 생겼습니다. 목회 사역을 하며 자주 하게 되는 감사 중 하나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입니다. 정말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심에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 서 있는 듯 하다가도 어느새 넘어지고 서로 다투는 교인들은 또 어느새 상한 마음을 툭툭 털고 다시 성경공부를 합니다. 멈추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교인 한 분 한 분들을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하며, 저희도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인내를 가지고 일 년 내내 출애굽기만을 반복, 또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연약했던 분들이 새로운 지체가 왔을 때 권면하고 가르치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하시는구나!'라고 새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2년을 꾸준히 성경공부를 해오며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완성은 말씀과 기도로 완성됨을 결론 삼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크라이나로 오면서 아이들과 함께 홈스쿨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도 역시 엇치락뒤치락하며 실수와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말씀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 아이들과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우리의 어떠한보다 말씀이 아이들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아이들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홈스쿨을 하며 이 땅의 깨어져 있는 수많은 가정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정이 회복돼야 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모두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세상의 속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땅의 다음세대들에게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는 참 교육이 될 수 있는 대안 학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간구할 마음을 주십니다.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꿈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감사합니다. 만약 무언가가 있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보다 더 빨리 달려가며 우리 힘으로 했을 텐데, 오히려 우리를 잠잠케 하시며 그분만을 구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 16:9) [GNPNEWS]

우크라이나 김중홍, 윤민정 선교사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제게 중요한 건 오직 예수님 한 분 밖에 없어요”

한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다. 우리는 어떤 상황 안에서 전체를 보지 못해 답답하고 절망할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다음 세대들을 섬겨오다 최근 암을 진단 받고 투병 중인 한 믿음의 증인을 만났다.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한 인생을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비범한 모습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함께 만나보자.

-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나요?

“저는 참 복잡한 유년기를 보냈어요. 당시 저희 가족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접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사는 동네에 교회가 많이 있었고 언니와 교회를 자연스럽게 다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제 때부터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온 가족이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지금 기억나는 건 열 살 무렵부터 죽음을 자주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왜 죽어야 되지? 영원히 사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곤 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분명한 답을 얻지 못했죠. 아버지께서는 사업을 크게 하셨고 꽤 부유한 편이었는데요. 어느 날 사업실패로 큰 어려움을 겪었죠.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 온 가족이 교회에서 성당으로 옮겼어요. 지금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고사도 지냈고요. 아마 복을 받고 싶어서였겠죠. 아무튼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라 좌충우돌하던 시간들이 생각나요.”

- 잠깐만 들어도 복잡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런 시간을 보내던 중에 제가 중학생이 될 무렵 어머니가 갑자기 무속인이 되겠다고 하셨어요. 생각해보면 그런 분위기가 어머니에게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왠지 모르게 무서웠어요. 정말 내림굿을 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제가 입학하게 된 중학교는 미션스쿨이었어요. 거기서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매일 같이 교회 가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던 생각이 나요. 우리 가족 모두 천국에 가게 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에게 교회 갔다 왔다고 혼이 나곤 했어요.”

갑자기 무속인 되신 어머니

- 쉽지 않은 신앙생활이었군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나누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은혜로만 살고 있는 이리나 집사(항동교회)

심각한 상황이었죠. 저는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도대체 뭐지?’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때까지 제가 교회에서 들었던 메시지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공해야 하고, 잘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북한이나 여러 나라들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성경에 나오는 핍박받고 죽어가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늘 이런 의문들이 제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 어떠한 것이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복음이잖아요. 마음에 갈등함이 있었는데 인터넷을 보다가 복음을 듣고 배우는 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11년 6월에 그 학교에 다녀오게 되었어요.”

- 복음을 구체적으로 알고 난 이후 삶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셨나요?

“다음세대를 섬기는 사역을 하며 많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거의 혼자 교회를 다녔기에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홀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인지를 알죠. 저처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교회에 나왔거나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 저의 어린 적 생각이 나서 너무 안타깝고 이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섬기기 시작했죠. 지금은 한 선교단체에서 진행하는 다음세대와 관련된 여러 학교들을 5년째 계속 섬기는 중이에요. 삶이 허락이 되는 데까지 섬기려고 해요.”

- 삶이 허락하는 데까지라고 하시니 비장한 느낌이 드네요.

“네.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 있어요. 작년 10월 초에 감기에 걸렸는

데 기침이 낫지를 않았어요. 정밀 검진을 한 결과 처음에는 늑막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물을 많이 뺐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직검사를 했는데 결국 폐암 4기로 나왔어요. 너무 놀랐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막연히 ‘주님이 허락하셨으면 뜻이 있겠지’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폐암 선고 이후 더욱 하나님 주목

- 현재 그런 몸 상태에서 다음세대를 섬기고 계시는거네요...

“저는 제가 아이들과 잘 맞고 아이들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제 수준도 아이들 수준과 딱 맞고요.(웃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모든 것을 제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었죠. 내 기준에 아이들의 모습이 맞으면 그 아이는 너무 예쁘고, 내 기준대로 하지 않는 아이를 보면 분노가 일어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잘 몰랐지만 실상은 ‘나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정말로 알게 하셨어요. 나는 아이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섬기는 저 자신을 사랑한 거였더라고요.”

- 가족이나 지인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가족들이 많이 놀랐는데 무덤덤한 제 모습을 보고는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대요. 지인들 중 몇몇은 소식을 들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전화도 못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섬기고 있었던 다음세대 학교에서도 이 일을 알게 되었는데 나중에 듣게 된 것은 아이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저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일로 정말 많은 사람들

로 느껴지는지 몰라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 실제로 기도의 능력을 몸으로 경험하고 계신 거군요.

“맞아요. 놀라운 것은 아파야 할 몸이 별로 아프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다음세대에게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 합숙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해 기어코 섬겼어요(웃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생각에 아이들 하나 하나가 복음을 정말 생명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섬겼어요.”

-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는군요.

“네. 놀라운 것은요. 이 병으로 인해 제가 정말로 얼마가지 않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 순간, 삶의 본질과 비본질이 정확하게 구분되더라고요. 죽음이 정말 실체가 되면 다른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살아왔던 생애를 돌아보고, 뭐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어요. 오직 저에게 예수님 한 분만 딱 남더라고요. ‘아, 정말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구나. 결국 주님밖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구나!’하는 결론을 확실하게 갖게 됐어요.”

사무치게 다가오는 은혜의 의미

-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물론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큰 병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제가 열심히 잘 산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은 정말 주님이 필요한 자에게 제대로 들려지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날마다 주님이 정말 필요한 자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은혜 없이는 한 순간도 살 수 없다는 말의 의미가 정말 사무치게 다가와요.”

- 몸이 아프셔서 이제 섬기는 일을 많이 못하시겠어요.

“네. 그렇긴 해요. 다음세대 학교에서 늘 아이들과 6개월에 한 번씩 아웃리치를 갔었는데요. 이번에도 꼭 함께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게 되었어요. 너무 속상했죠. 그러면서 이런 일을 섬길 수 있었던 지난 시간들이 얼마나 축복된 기회였는지 더 알게 되었어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그 모든 섬김의 자리가 은혜로 허락되었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섬기지 못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계속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제가 기도로 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어떤 아이들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선생님, 죽어요? 안돼요!’라며 막 울었어요. 사실 그동안 저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다분히 의무감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를 받는 입장에 있어 보니 정말 기도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누군가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은혜

- 은혜라는 말이 저에게도 다시 들리네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주일설교를 통해 ‘정산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제 삶에 있었던 모든 관계 안에서 바르지 않았던 죄가 있다면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용서를 구하라는 의미로 받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었는데, 갑자기 오래전에 유년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교회 재정으로 사역을 하고 회계정산을 맞추기 위해 가짜 영수증을 썼던 일들이 생각났어요.”

(6면에 계속)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성전에 충만한 영광의 복음 (4)

진리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성경도 기록했던 솔로몬조차 인생 말년에 망령을 떨고 비참하게 무너졌다. 솔로몬 성전은 이미 곳곳에 우상과 쓰레기로 가득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이와 같이 대했다는 데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표를 엿볼 수 있다. 우리 또한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바로 우리의 영적 지표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종교개혁 기수처럼 등장한 요시아.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던 요시아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열망을 가지고 우상을 타파하기 시작했다. 돈을 들여 성전 청소를 하다가 잊혀져 버린 율법책을 발견한다. 율법대로 하면 왕의 통치는 철저한 성경 원리에 입각하도록 율법 등사본을 항상 곁에 두어야 했다. 화들짝 놀란 사람들이 요시아에게 율법책을 가져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이 부패하게 된 이유를 보게 된다. 요시아는 두려워하며 왕복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어진다(대하



일러스트= 임이영

34:8~21).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구나!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었구나!’

요시아는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낸다. 혹시 희망이 있는가.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다(대하 34:22~28). 어차피 이스라엘에게 심판은 내려졌지만 요시아는 잿더미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개혁을 실행한다. 개혁의 원동력은

율법, 즉 말씀으로 개혁하는 일이었다(대하 34:30~32). 하나님께서는 요시아를 통해 마지막 개혁을 일으켜주셨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언약한 대로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땅에 이방인 왕을 통해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다. 하지만 스톱바벨과 함께 성전을 재건한 사람들조차 그

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들은 결국 ‘인간 다윗의 왕의 자녀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메시아가 와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이후 시작된 신약교회는 로마 가톨릭을 낳게 되었지만 그마저도 말씀을 저버림으로 타락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아무리 옆치락뒤치락해도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간다. 하지만 말씀이 사라지면 중세 가톨릭의 비참한 일이 내 안에서 고스란히 되살아나게 된다.

말씀을 저버린 중세의 비극 속에서 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은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자는 일이었다. 존경하는 사람의 말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생명 다해 지키게 된다.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순교도 불사했던 프랑스의 왈도파는 프랑스어로 성

경을 번역했고, 존 위클리프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했다. 무려 1300년대에 일어난 일이다. 말씀이 심어진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성경에 목숨을 걸었던 그들이 뿌린 씨앗이 1500년대에 마틴 루터, 칼빈, 츠빙글리 등에게 심어졌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뒤집어 놓는다. 다른 것 다 몰라도 이 말씀 하나에만 생명을 걸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 수준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아무리 교회에게 어려움을 주더라도, 영원한 진리가 버티고 있는 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2016. 6 메시지 정리).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LOG미션 대표)

복음기도총서1

복음독 복음과기도미디어
gospel & prayer media

내가 굶하다

뜬어주는

전도편지

100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급하다!
뜬어라 전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어디서든 전도를 멈추지 말라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_김정화 저



별책부록의 전도편지를 한 장씩 뜬어서 언제 어디서나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값: 19,000원
(별책부록 포함)

구입문의 야긴과 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Interview

<5면에 이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제 양심을 거슬렀던 일들이 하나씩 생각나기 시작했죠. 누가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용납하지 않고 10년이 훌쩍 지난 일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적어서 곳곳마다 보냈어요. 너무 부끄럽고 하기 싫은 일이어서 일주일을 고민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순종했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다시 깨닫게 됐어요. 요즘 제가 치료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체력을 키워야 해서 저렇게 걸으면서 그냥 눈물이 났어요. 나 자신이 얼마나 죽을 죄인인가 하고요.”

-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체 알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주님의 허락하심이잖아요.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드리는 거죠. 돌아보면 저는 100m 달리기 하는 선수처럼 늘 바쁘게 세월을 아끼고,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부지런히 참 악착같이 살았어요. 뭔가 끊임없이 해야만 직성이 풀렸어요. 하지만 지금 주님은 저에게 ‘그냥 존재로 내 안에 있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없는 열심을 가졌던 제가 이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GNPNEWS]

“누구나 이해가 안 되고, 도대

J.D.





“청소를 하고, 점심을 먹으면서도 지체들을 위해 기도했다”

학교에서 열린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캠프에 섬김이로 참여하게 되었다. 정말 큰 기대감과 부푼 마음으로 준비한 캠프가 시작됐다. 선포되는 메시지는 들으면 들을수록 나의 영혼 안에서 감격이 일어나고, 기쁨이 되는 복음이었다. 육체가 피곤해 나도 모르게 잠이 올 때도 있었지만, 주님은 강의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셨다. 강사로 선 형들과 누나들의 삶을 알고 있어서 그랬는지 어떤 고백을 하든지 그 고백들은 모두 생명이 되어 내게 흘러왔다.

강의를 들으며 마음에 대해서 그동안 내 안에 확실하지 않았던 진리들이 정리되었다. '내가 나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사실이 내 마음에 묵직하게 다가왔다. 나의 마음을 아시고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께 그래서 나아가야 하는구나!

지체들을 섬기면서는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인지 보여주셨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피곤해지자 드러나는 불평과 무기력함. 그런 모습이 드러날수록 더욱 주님께 은혜를

“
긴 역사 동안 외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부여졌다
기도의 자리에서
쉬지 말고,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셨다
”

구했다.

“주님. 이런 저의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지체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마음 다해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섬김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나

조장이라는 직임으로 어깨가 무거웠다. 하는 일이 다른 섬김에 비해 많지는 않았지만, 조원들을 돌아보고 친해져야 했기 때문이었다. 십자가 복음의 진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며 긴 역사 동안 계속 외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여졌다. 나는 자기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 한 번도



일러스트=박남희

하나님께 순결한 사랑을 보여드리지 못한 자였다. 오늘까지 변함없이 외치셨던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계속 기억하려고 말씀해주셨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쉬지 말고 말씀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셨다.

더욱 치열하게 싸웠던 영역은 보이는 현상과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 눈에 보이는 훈련생들의 모습 앞에서 피곤한 육체를 주목하며 기도하기를 멈출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것인지 말이다. 매일 아침 묵상한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더

욱 기도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되어주세요.” 보이는 것을 결론 삼지 않고 다음세대인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고 기도할 때, 주님은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새 생명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새 생명은 말씀으로 기도한다고 알려주셨다. 그것이 내 믿음의 최종 마무리지점이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 그 후로 청소를 하고, 점심을 먹으면서도 지체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셨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을 지쳐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내게 증인된 지체들과 선생님이 있지 않은가?

이번 캠프를 통해서 주님은 딱한 가치를 붙잡게 하셨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이다. 싸움은 계속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그럴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겠다. 더욱 목소리를 높여 나의 영혼을 깨워,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노래하겠다. 힘 되시고 말씀이신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담대하고 거침없으셨던 쪽은 항상 내가 아닌 주님이셨기에 그분이 모든 걸 하셨다!

[GNPNEWS]

이세하 형제(16)

* 믿음의 글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나눠주세요. 믿음의 증인을 추천해주셔도 좋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7417-0408

부흥을 위하여

“우리, 천국에서 만나겠지요?”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순교자의 가족을 만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 얼마 전 나는 그런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지난 12월 초순, 나는 현장에 내 이름으로 지명수배 현상금이 붙은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중국을 방문했다. 그때 뜻밖의 사

람을 만나게 됐다. 그들은 북한에서 온 순교자 가족이었다.

그들을 통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화형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북한의 군인들은 성도들의 손을 나무에 묶어서 매달고 발 밑에 있는 장작에 불을 질러 그들을 태워 죽였다.

또 많은 수의 목사, 집사, 장로들을 폐광에 몰아넣고 다이내마이트를 터뜨려 몰살시키기도 했다. 오직 하나의 죄목,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이다.

순교자들은 찬송을 부르며 그렇게 죽어갔다. 그러나 그 순교자 가족들은 남편 때문에, 아빠 때문에 지난 40년 간 갖은 박해와 고난을 받으며 살아야 했다. 그들은 한결 같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소망으로 살아온 40년의 삶

그들은 순교자의 자녀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다. 하나는 “예수가 다 뭐냐?”라며 포기하고 자기 길을 간 사람들이다. 이 말을 전한 사람은 “그들을 탓할 수만은 없지요. 그들도 우리가 용서해야 하지 않겠소?”라고 말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아버지 혹은 남편의 뜻을 따라 순교의 길을 택한 사람들로, 그 수가 제법 된다고 했다.

순교자의 자녀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들은 망명을 원하지 않아요. 돌아가서 믿음을 더 굳게 하고 순교하는 정신으로 살겠지요.” 그러면서 참았던 울음을 왈각 터뜨렸다.



출처: 모퉁이돌선교회

우리는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구제비를 줄 정도의 재정이 있었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2년 치에 해당하는 생활비와 의류, 음식까지 만들어 보냈다.

그곳을 떠나기 전 우리는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그들의 목소리는 다 쉬어 있었는데 목소리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눈물도 말라버린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손을 맞잡고 다시 울어버렸다.

헤어지면서 한 순교자의 자녀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겠지요?” [GNPNEWS]

<출처: 붉은 예수쟁이(문광서원)>



북한 형무소에서 고문 받았던 이야기를 하는 성도의 모습(출처: GODREPORTS 캡처)

나의 소망

나를 지탱해준 말씀

1813년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리빙스턴은 10대에 회심하고 중국 선교사로 가기 위한 준비를 했다. 하지만 아프리카 선교사인 로버트 모팻을 만나 1840년 12월 아프리카로 떠나게 된다.

맹수의 습격을 받고, 말라리아에 걸리면서도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사막을 건넜으며 노예무역을 금지하도록 하는 일을 했다. 생명을 걸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 땅에서 치열한 시간을 견딘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언어도 알아들을 수 없고 나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엇이 나를 지탱해주었는지 아는가? 그것은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라는 주님의 말씀이었다.” [GNPNEWS]



뷰즈인 아트
Views in Arts

밀레의 <수확자들의 휴식- 룯과 보아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장 프랑수아 밀레. 지금은 가장 사랑받는 미술가 중 한 사람이며, 인상주의에 큰 영향을 미쳤던 중요한 인물이지만 한때 밀레에게도 흑독한 시기가 있었다.

19세기 당시, 화가들의 유일한 등용문이었던 살롱 전에서 신화, 전쟁, 역사 등을 주제로 한 대형 그림이 주목받았을 때, 아무도 밀레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 시기 그는 배우자와 사별하는 아픔까지 겪게 된다. 꿈을 안고 찾아간 파리에서 되레 모든 것을 잃었던 밀레는 1849년 6월 파리를 떠나 농촌 마을 바르비종으로 터전을 옮긴다.

그로부터 몇 개월 뒤부터 그리기 시작한 작품이 바로 이 ‘수확자들의 휴식’이었다. 밀레 작품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려왔던 그림이며, 밀레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작품이기도 했다. 이 작품 이후, 밀레는 ‘이삭 줍는 사람들’과 ‘만종’을 잇달아 완성하면서 대가로 인정받게 된다.

작품에는 룯기 2장에 기록된 보



▶ 작품설명: 장 프랑수아 밀레, <수확자들의 휴식- 룯과 보아스(Harvesters Resting - Ruth and Boaz)>, 1850~1853년, 유화, 67.3x 119.7cm

아스와 룯의 만남이 그려졌다. 사실 룯기의 절정이라면 이방 여인 룯이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반전의 피날레라 할 수 있는데, 밀레는 이 결말을 그리지는 않았다. 그가 주목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룯에게 날마다 공급

하시는 돌보심의 은혜였다. 어쩌면 밀레도 룯과 똑같은 배고픔과 외로움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룯기 2장에서 보아스는 밭에서 수확하는 일꾼들에게 룯이 주워갈 곡식은 물론, 새참도 나누어 주도록 당부하였는데, 밀레는

이 부분을 그릴 때, 자신이 살았던 당시의 장면으로 바꾸었다.

그림에서 보아스는 주저하는 룯을 일꾼들 앞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뒤에는 보아스처럼 룯을 일꾼들에게로 이끄는 염소 한 마리가 그려졌다. 일꾼들은 일손을 멈추고

마실 것을 나누며, 두 사람에게 시선을 돌렸다. 아마도 가운데 여인의 손에 들려 있는 잔에 마실 것이 채워지면, 이 잔은 룯의 손으로 옮겨질 것이다.

날마다 공급하시는 돌보심의 은혜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때로는 현실의 문제에 압도되어, 이 가치들을 잊을 때가 있다. 그러나 주님이 이러한 우리의 형편을 모른 채하시지는 않는다. 마치 날개를 덮어주시듯, 우리는 늘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곤 한다. 그것은 마치 보아스가 룯에게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 받으려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룯 2:12)고 했던 축복의 기도와 꼭 같다. 그리고 그것은 파리에서 도망치듯 나온 밀레가 바르비종에서 알게 되었던 주님의 돌보심이기도 했다. [GNPNEWS]

이상윤(미술평론가)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모은 라면 180개

나는 기독교의 교사로 섬기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교사와 학부모, 교회가 함께 믿음으로 연합하여 다음세대가 주님의 생명으로 세워지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섬기는 자로 세워주셨지만 주님의 행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보며 오히려 섬김을 받는다는 생각이 든다.

어느 날, 한 학부모님이 학교 주방을 한 주간 섬기러 오시면서 아이들을 위해 라면 180개를 사오셨다. ‘형편이 매우 어려운 가정인데, 아직 등록금 싸움도 치열한 가정인데, 그런 형편에 어떻게 라면을 준비하셨을까?’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리저리 마시라고 따로 말씀을 드렸다. 주방 섬김을 다 마치고 돌아가신 후 나에게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오셨다.

“...기도 외에 재정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 힘들 것으로 생각했던 고정관념을 깨고 주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했습니다. 정부에서 저소득 가정에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를 매일 조금씩 학교를 생각하며 라면을 한 봉지, 두 봉지 사서 모아왔습니다. 라면을 한 봉지씩 모을 때마다 아이들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 제게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문자를 다 읽고 얼마나 마음이 먹먹하던지. 정황도 알지 못한 채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던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우리가 그런 라면을 먹었던 것이었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런 사랑을 받고 자라고 있구나.’

그날 밤 나는 주님 주신 감동에 순종하여 이 이야기를 지체들과 공유하는 인터넷 일기에 적었다. 며칠 후 나눔방의 한 분이 연락을 주셨다.

“아내가 어제 선생님의 글을 보

고, 라면 180개를 가지고 아이들 점심을 섬긴 어머니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그래서 적은 재정이지만 그 어머니 자녀의 학비를 후원하고 싶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9:8) 과부의 두 렷돈을 기뻐 받으신 주님이 한 어머니의 마음을 받으신 그 일이 은혜였고, 그 은혜가 또 다른 생명의 섬김을 일깨우는 것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일러스트=이수진

“
과부의 두 렷돈을
기뻐 받으신
주님이
한 어머니의
라면 180개에 담긴
마음을 받으시고
또 다른 생명의 섬김을
일깨우셨다
”

이렇게 주님이 친히 이 학교를 이끌어 가시고 진리 안에서 학생들과 우리 교사, 가정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후에 우리 학교에는 ‘180’이란 숫자가 유행처럼 번졌다. 학부모님들이 줄지어 과일 180개, 음료 180개... 마음 다하여 섬겨주셨다. 주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부요하며 사랑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알게 하신다. 살게 하신다. 보게 하신다. 주님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

[GNPNEWS]

조완순 선교사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 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7. 7. 23 ~ 8. 9 (가나다 순)

개인 김나은 김민성 김성훈 김애심 김유남 김혜신 박숙자 박용자 배종덕 서춘자 송경희 안수경 유자인 윤경석 이란영 이정희 이준진 이진관 장미자 전주희 조경미 조명숙 조상국 조성실 조세라 조형광 주유순 최근희 최현주 무명

교회 및 단체

겨자씨교회
그루터기교회 마하나임심대교회
목자교회 산돌교회 새마을교회 새순교회
순회선교단미주지부 시은교회
양덕원감리교회 은혜신일교회 죽전교회
처음사랑교회 천보산민족기도원
하원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 [(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 (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